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79]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19 (2)96사단 주둔지-(16)테역장오리
수난과 비극의 역사현장... 조사 나서야

입력 : 2007. 08.30. 00:00:00



▲취재팀이 테역장오리 9부 능선 지점에서 찾아낸 갱도진지. 전체 구조가 Y자
형으로 돼 있다. 아래 사진은 테역장오리 사면에서 보이는 숲가마터. /사진=이
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테역장오리에도 갱도진지 구축 관심 제주섬 전체 전쟁기지화 생생한 흔적

사람들이 신성시했던 물장오리(물장울 · 水長兀) 일대는 수난과 비극의 역사무대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성소였던 물장오리에까지 갱도진지를 구축하는 등 최후의 옥쇄를 준비했다. 그 현장은 오늘날까지도 오름의 정기를 갇아먹고 있다. 오름 곳곳에는 제주4·3 당시 무장대 사령관이었던 이덕구 관련 흔적 등이 남아있어 발길을 멈추게 한다. 물장오리 일대는 이처럼 일제강점기와 4·3에 이르는 60여 년 전의 아픔과 비극을 말없이 보여주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묻혀져 있다.

일본군 군사지도인 제58군배비개견도를 보면 물장오리 · 견월악 일대는 '복곽진지'로 표시돼 있다. 이 일대를 주요한 전략거점으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물장오리 뿐 아니라 인접한 오름인 테역장오리에도 갱도진지를 구축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테역장오리(제주시 봉개동 산78-2번지 일대 소재 · 표고 846.3m)는 물장오리 북서쪽에 위치한 오름이다. 오름 이름은 제주어로 테역, 즉 떼(잔디)가 많다는데서 유래했다. 한자로는 초장울(草長兀)이다.

일본군은 이곳 테역장오리 깊숙한 곳에도 갱도진지를 만들어놓았다. 특별취재팀이 테역장오리 탐사에서 확인한 갱도진지는 2곳이다. 갱도는 정상부 근처에 송이층을 뚫고 소규모로 구축돼 있다.



▲일본군이 테역장오리 정상부에 파놓은 갱도진지 내부.
아래사진은 갱도내부에서 밖을 바라본 모습.

오름 정상부에서 찾아낸 갱도는 기억(ㄱ)자형을 하고 있다. 길이는 10m 정도로 소규모 이지만 갱도구조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 하나의 갱도는 이보다 아래지점인 9부 능선쯤에서 확인된다. 길이는 25m 정도로 입구가 2 곳이다. 갱도구조는 전체적으로 알파벳 와이(Y)자형에 가깝다. 한쪽 입구는 토사층이 흘러내리 면서 막혀있고 또다른 입구 역시 토사로 막혀있어 좁아진 상태다. 갱도내부는 지반이 약한 송 이층이 차츰 무너지면서 함몰이 진행되는 등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다.

테역장오리에서는 갱도구축 흔적을 여럿 볼 수 있다. 아마도 당초에는 갱도진지 수가 여럿 됐 을 것으로 보인다.

테역장오리에는 갱도진지 이외에도 숯가마터가 거의 원형대로 남아있는 등 생활유적을 곳곳에 서 볼 수 있다. 숯가마터는 석축으로 둘러싸고 흙으로 다져서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테역장오리 일대는 군이 주둔하기에 좋은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다. 오름에서 남쪽으로는 널따란 초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주변을 돌아가면서 물장오리, 테역장오리, 불칸디오름(火長兀), 쌀손장오리(沙孫長兀) 등이 둘러서고 있다. 오름군 한가운데에 널따란 개활지가 펼쳐져 있는 것이다.

테역장오리에도 갯도진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일본군이 얼마나 집요하게 섬 전체를 요새화하려 했는지를 보여준다. 이곳 갯도 역시 처음 확인된 것이어서 물장오리를 포함한 이 일대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물장오리 일대의 일본군 군사시설과 4.3역사유적, 산정화구호 주변에 남아있는 옛 건물지에 대한 종합조사 등을 통해 역사적 성격 등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탐사포커스]일본군 96사단과 진지구축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주둔지 및 진지분포 상황을 담은 군사지도인 '제58군배비개견도'를 보면 일본군 제96사단은 제주도 중앙부를 중심으로 주둔한다. 모슬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부 일대 제111사단이나 제주도 한림 애월 등 서부지역에 주둔했던 121사단과 비교하면 가장 넓은 작전 구역을 담당했다.

96사단 지역중 북곽진지는 58군사령부가 주둔했던 어승생악과 서귀포 지역의 미악산, 건월악 일대가 꼽힌다. 건월악 일대는 96사단의 가장 동쪽에 있는 북곽진지다. 그렇지만 건월악에서 갯도진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갯도구축 흔적들만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오문필 자문위원(한라산등산학교장)은 "오름 정상부 일대에 통신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훼손, 파괴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96사단 주둔지는 111사단과는 진지구축 양상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111사단이 산방산 월라봉 단산 등 해안을 중심으로 주저항진지를 구축했다면 96사단은 해안과 다소 떨어진 지점에 밀집돼 있다. 또한 96사단 주둔지 중 서귀포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진지구축 양상이 미약하다. 이는 미군 등 연합군의 상륙가능성 가장 높은 곳이 모슬포 일대가 최우선적으로 꼽히는데다, 나머지 2곳이 상륙예상지점도 제주시 해안과 한림지역으로 점쳐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